

전남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기관 설립 시급하다

수도권 17곳, 부산·경남 8곳 보유...광역자치단체중 전남만 없어 환자들, 원정치료에 의료비 지출 막대...설립 요구 목소리 확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도에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목표를 비롯한 전남지역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은 수도권에

만 무려 17곳이 있으며, 부산·경남의 경우도 8곳이 있지만 전남도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진입하기 전·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비 지출이 막대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목포시 등에 따

르면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도만 회복기 병원이 없는 탓에, 전남지역 중증장애인들은 고가의 의료비를 들여 일반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 원정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다. 심지어 개인적 치료 등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도권과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6, 대전·충남 5, 광주 3, 전북과 강원 각각 1곳 등이 있으나 전남도만 전무한 실정이다. 재활치료 전문의료기관인 회복기병원이 들어서면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입원한 뇌·척수 손상환자는 입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 재활의 골든타임인 회복기 동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회복기병원이 설립될 경우, 전남의 의료환경 개선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의료복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지현 과장은 "전남장애인민원상담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영구 장애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도민들에게 재활치료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정보 공유를 위해서라도 전남도에 반드시 회복기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목포시 관계자도 "우리 지역에 회복기병원이 기관이 들어서면 향후 서남권의 재활치료 거점도시가 돼 타 시·도에서 환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며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서라도 절실한 현안이다"고 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3·15의거 63주년 거리 행진 제63주년 3·15의거일을 맞아 15일 오전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구동 4·19광장(빛고을문화관 앞)을 출발해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까지 거리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원...20~29일 신청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85명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이다. 신규 대상자는 20일부터 29일까

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이다.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소속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남도 문화예술 활성화 20개 사업 추진

전남도, 순천 전통국악 공연 등 17개 시·군 우수 문화 자원 발굴

전남도가 '2023년 남도문화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에 17개 시·군 20개 사업을 선정, 시·군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여망 남도의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여망 남도의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 핵심 자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순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의 열과 향취에 달빛소리'의 전통국악 공연 ▲광양 '남도문화 르네상스 화살로드' 활쏘기 대회 ▲화순 '금요일엔 고인들 캠프' 고인들 유적지 연계 캠핑 프로그램 ▲강진 '연극 모란이 피기까지 우리는'의 김명랑 시인을 소재로 한 창작 공연 등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착공

산림비즈니스센터·종자양모기술센터 등 내년 준공

전남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이 15일 나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단지는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모기술센터, 스마트온실 등이 들어 서게 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현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강영구 나주부시장, 전남도의회 최선국 위원

장, 김성일 도의원, 김호진 도의원, 최명수 도의원, 산림 관련 단체장과 시공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께 열린 안전시공 다짐대회에서 공사 관계자들은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점검 생활화,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준수 등을 결의했다. 이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가 전남도의 식의약산업을 이끌고, 향

후 산림연구 100년을 준비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점단지는 향후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산림바이오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임업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원료 불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까지 난대 산림자원의 가능성을 밝혀내고 추출물 은행을 구축하는 등 바이오소재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지적소유권 69건, 기술이전 45건 등의 성과를 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과학영재에 무료 전문교육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남도가 지역 전문기관 시설을 활용해 과학에 재능 있는 학생에게 체계적 전문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과학영재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중학교 1학년 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창의력 면접을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 청소년의 과학적 재능 발견과 계발을 위

한 '과학영재교육'에 참여를 바라는 청소년은 오는 28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목포대·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말과 여름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블루바이오, 블루에너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주말 전문교습, 방학 집중수업 및 현장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